

正體 大願 修心 和合 作善

○ 동사점 소식지 2016년

○ 동사점

2016년 봄  
통권18호







우리 모두의  
지고한  
행복을  
위하여

고마운 마음 —

# 행복마을 후원 안내

- 온라인 후원방법
- 실시간 계좌이체
  - 자동이체
  - 카드결제
  - 휴대폰 결제 등



행복마을 동사섭 홈페이지  
<http://www.dongsasub.org/donation>

동사섭을 향한 마음 나누기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위 주소로 접속하시면 행복마을 동사섭  
홈페이지에서 바로 온라인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님의 후원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더했습니다. 추후  
조금 더 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도록 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시 후원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후원금액  
1계좌(5천원) 이상, 일시불도 가능

후원계좌  
농협 521-01-073315 계좌번호 행복마을

문의  
동사섭 행복마을 본원 사무처

전화  
(055) 962-1070  
FAX  
(055) 962-1021





## 편집후기

봄이다.

이번 봄호의 ‘책머리에’는 용타 큰스님의 <즉불, 즉탈, 즉도하라>를 실었다. 조사선이다. 우리는 이미 자유함 속에 있으니 그 확보된 자유를 살고 확인하라. 또 관행하라. 그리고 무위즉도와 작위즉도하라는 말씀이시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을 글로 정리했다. 그리고 글의 끝에 새해를 맞이하여 큰스님의 친필 인사말씀을 실었다. 한 해 동안 가슴에 새겨야 할 큰스님의 일갈이시다. 정연호 사진작가님의 사진과 함께 실어 그 의미를 더했다.

큰스님 책 <10분 해탈>에서는 <공부 길 세우기>를 지난 호에 이어 실었다. 간단하되 너무 간단하지 않게, 복잡적이되 간단하고, 간단하되 복잡한 길인 중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주바라밀과 조바라밀이라는 말씀을 소개했다. 마음공부 길에 햇빛이 되시기 바란다.

동사섭 회원 탐방—동사섭인의 향기에서는 도안 님을 모셨다. 이 코너를 처음 개설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었던 분이 도안 님이셨는데 건강 때문에 고사하셨었다. 이번엔 모시게 되어 안도감이 든다. 도안 님의 동사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

이번 호에서 특별히 시도한 것이 있다. 그 하나가 QR코드이다. 음악과 시를 소개한 부분에서 사용하였는데 도반님들께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시기 바란다. 또 하나는 동사섭인들의 글을 소개하였다. 이제부터 동사섭인이라면 동사섭의 법리를 담은 글이든 문예문이든 동사섭과 관련된 글을 소식지에 실을 예정이다. 많은 참여 바란다. 이 소식지가 도반님의 마음공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뜻

윤석우 님



표지사진: 유명 님 <수선화>



동사섭소식지

2016년 봄

통권 18호

발행일: 2016년 2월

발행처: 재단법인 행복마을

발행인: 용타 스님

편집: 행복마을 동사섭 서울센터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SK건설 2층 행복마을 동사섭

02-3499-1016

디자인: 슬로우슬로우킥스sq

인쇄: 예지커뮤니케이션

\* 이 회보는 회원용으로서 비매품입니다.

\* 이 회보는 회원들의 성금으로 제작됩니다.

## 차례

책머리에	06	즉불 卽佛 즉탈 卽脫 즉도 卽度 하라
명상칼럼	12	나는 어디에 있는가?
동사섭 소식 I	14	2016년 수련회 일정
동사섭 소감문	16	260회 일반과정 누구나 이미 행복·해탈 속에 있다
동사섭 소감문	20	45회 중급과정 하나하나, 구슬을 꿰어 보배를 짓듯이...
동사섭 소감문	24	36회 고급과정 아하! 하는 삶
쉬어가는 페이지	30	박희진 시인 <녹차송 綠茶頌>
큰스님 책 <10분 해탈>	32	<공부 길 세우기>
동사섭 소식 II	38	명상적 음악이 필요한 다섯 가지 마음들
동사섭 회원 탐방	40	동사섭인의 향기—도안 최동춘 님
동사섭인의 글 I	48	도반탐방 아미타 범현 스님과의 느린 만남
쉬어가는 페이지	52	선시감상 <과고사> 청허휴정
동사섭인의 글 II	54	<생일>
쉬어가는 페이지	58	우리 모두의 지고한 행복을 위한— 스마일 갤러리
동사섭 소식 III	60	우주를 만나는 행복한 시간
쉬어가는 페이지	66	권장도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외
고마운 마음	68	2015년 행복마을 후원금 현황



# 즉불 卽佛 즉탈 卽脫 즉도 卽度 하라—

거울  
용타 스님

달마 達磨 대사는 소림사에서 9년째 칩거하고 있었다. 그런 달마대사 앞에 혜가라는 스님이 나타났다.

“대사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해결해 주리라.”

혜가는 스승에게 바칠 마음을 찾아보았다. 아무리 찾아도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다.

“대사님, 아무리 찾아도 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괴로우냐?”  
“괴로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됐구나. 그것이 전부다.”

길게 설법할 필요 없이, 불경 한 구절 언급하지 않고 즉석에서 해탈케 하는 조사선 祖師禪이 중국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사선의 시작점은 달마 達磨 대사이자. 서력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집멸도 苦集滅道라는 가르침으로 시작된 불교는 초기불교와 상좌부불교, 대승불교를 거치면서 다양한 불교사상으로 장엄되었다. 불멸 후 10세기 경, 공空사상, 유식 唯識사상, 탐진치 貪瞋癡사상, 불성 佛性사상, 성불 成佛사상 등이 불교사의 도도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달마라는 걸출한 인물 속에 조용한 자각의 아우성이 일어났다. 달마 시대의 정통 불교는 성불 成佛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네 중생들 속에 부처 될 가능성으로 불성 佛性이라는 종자 種子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성이 속세에 쌓아온 탐진치 貪瞋癡라는 먹구름에 가리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몇 아승지겁 阿僧祇劫을 갈고닦는 수행 修行을 하면 멀고 먼 미래의 어느 날 성불이라는 큰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었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참으로 바르고 당당하고 정통적인 가르침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달마 입장에서는 너무도 바른 이 가르침이 숨 막히도록 답답하였다.

그래서 달마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달마는 혁명의 명분 거점을 석존의 보리수 하의 대각 내용인 연기법에서 찾았다. 연기 緣起는 실체 實體를 지양 止揚함으로써 무아해탈 無我解脫과 동체대비 同體大悲를 끌어낸다. 그 어느 것도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 無我, 비아 非我가 자각됨으로써 해탈을 실현하고, 전체가 어우러진 하나라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대비 大悲를 실현한다. 달마의 눈에는 천하가 온통 중중연기 重重緣起하는 한 덩어리 신성 神聖한 그 무엇이였다. 바로 부처가 아닌 것이 없었다. 부처 아님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공덕천과 흑암녀의 이야기를 보자. 언니인 공덕천은 천사처럼 아름답다. 아름다운 공덕천이 장자 長者의 집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청했다. 주인은 어서 들어오라 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서 추악하기 짝이 없는 흑암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인이 아니, 아니, 당신은 안돼, 하였다. 그랬더니 공덕천의 말이 흑암녀는 자신의 동생이라 항상 함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기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의 인 因이 되고 과 果가 된다. 그래서 전체가 한 덩어리다. 중중연기 重重緣起하는 한 덩어리의 무엇이이다. 이 한 덩어리를 부분적으로 끊어가면서 실체 놀음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부처로 인정한다면 전체를 부처로 인정해야 되고 하나를 악마로 인정하면 전체를 악마로 인정해야 한다. 달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나>, <나의 마음>을 신성 神聖 확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혁명의 기치 1호로 즉심즉불 卽心卽佛: 이 마음이 바로 부처를 부르짖기에 이른다. 중국에서 새 불교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달마가 새 불교를 외친다고 해도 부처님께 미안할 까닭이 없는

것은 불교의 목적이 **이고득락** 離苦得樂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최강점 하나는 그 교리가 **도그마** dogma: 진리·독단이 아니고 **이고득락** 離苦得樂: 고통을 벗어나고 즐거움을 실현함을 위한 **방편** 方便이라는 점이다. 불교의 주안점은 가르침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고득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고득락만 되면 어떤 수단이든 훌륭한 법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달마의 혁명적 가르침은 얼마든지 뗏뗏할 수 있었다. 달마는 이렇게 외쳤다. “뉘, 골백만 년 후에 성불한다고? 웃기는 소리. 우리는 그냥 이대로 부처야!” 얼마나 통쾌한가.

이러한 달마의 외침은 **번뇌즉보리** 煩惱即菩提까지 고려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타당하다. 조사선 祖師禪 불교에는 **번뇌즉보리** 煩惱即菩提라는 지침이 있다. 번뇌란 탐진치 貪瞋癡를 말한다. 탐진치가 보리 菩提: 진리라는 것이다. 탐 貪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탐 자체가 나쁜 놈이겠는가? 나와 상관을 관계를 떠나서 탐 자체만 고려하면 그것은 그저 신성한 에너지일 뿐이다. 고통 苦痛이라는 것도, 그 자체는 연기의 한 고리일 뿐이요, 신성한 에너지일 뿐이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된다. 탐진치 貪瞋癡이든 고통 苦痛이든 불편한 것이니 그것을 피하면 될 뿐, 그 자체를 좌악시킬 일이 아니다. 아무튼,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부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큰 공덕을 끼치겠는가를 상상해보라. 즉심즉불 卽心卽佛, 여즉시불 汝卽是佛을 선언해주신 그 조사님들은 인류사에서 참으로 큰 밥값을 하신 것이다.

즉심즉불 卽心卽佛이라! 부처라는 옷을 입었으니 이제 부처의 옷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즉불 卽佛이라고 했으니 불 佛에 어울리는 최상의 삶을 드러내야 할 터,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유로움이요 해탈이다. 즉불 卽佛에 즉탈 卽脫이 상응된다. 즉탈이란 지금 바로 걸림 없는 자유함을 사는 것이요, 걸렸더라도 곧 벗어나는 것이다. 어떠한가? 이 조사선 祖師禪이. 조사선은 진정 활불교이다. 즉불 卽佛로 입재 臨在하며 즉탈 卽脫을 산다!

조사선은 교과서(경전)를 의지하지 않고 **견성성불** 見性成佛하는 것이 그 가풍 家風이다. 경우에 따라 **능가경** 楞伽經이나 **금강경** 金剛經을 의지했으나, 경전이 없어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즉탈 卽脫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조사선의 주된 가르침이었다. 조사들은 “지금 누가 너를 구속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네가 구속되어 있다고 한 생각 비틀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너를 구속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개가 여차저차해서 괴롭다고 하는 제자가 있으면, 조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개가 너를 어쨌다고? 아, 그래? 이 순간도 그놈이 네 코빼기 앞에서 너를 괴롭히고 있어? 지금은 없잖아. 과거심 過去心 불가득 不可得이야, 과거는 지나가서 없어, 그런데 없는 것을 가지고 왜 그래?” 얼마나 훌륭한 불교인가. 아무 도구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문득문득 벗어나 버리는 것이다. 방하 放下다.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

그런데 이 자유의 길에는 제1장과 제2장이 있다. 제1장은 **[확보된 자유]**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다. “누가 너를 묶고 있느냐?” 하는 힐문은 “이미 너 자유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미 확보되어있는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확보된 자유, 이것을 해탈 解脫의 한 축 軸으로 삼는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접하고 있는 여러분도 바로 지금 자유한 상태에 있는 자기 삶을 살펴보고 그 삶을 향유하라. 참으로 이미 해탈 속에 있지 않은가. 스스로 잠들고 스스로 깨어난다. 누가 자라고 강요하고 누가 잠에서 깨어나지 말라고 하는가. 이미 자유다. 그리고 이 몸뚱이 전체를 볼 것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있다. 실핏줄, 위장, 허파 등등 모두가 해탈이고 그저 해탈, 해탈이다. 나는 지금 배가 아파요 한다면 그것은 그저 배 아픔을 경험 중일 뿐이다. 어떤 인과 차원의 경험을 사는 중이다. 그 경험에 시비하지 말라. 다음은 제2장이다. 제2장은 **[관행된 자유]**다. 전통적인 쪽으로 가서 교과서를 끌어다가 가르침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능가경이나 금강경에 의지하면서 관행 觀行하는 것이요, **[죽음 명상]**을 배우고 익히면서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나지사 명상]**을 배우고 익히면서 모든 역경계에서 벗어나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조사선은 즉불 卽佛과 즉탈 卽脫에 이어 즉도 卽度로 수렴된다. 선불교 조사선역시 대승불교이기 때문이다. 대승은 참여다.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승이다, 그런데 선불교 전체를 통해서 고통의 현장에서 고통을 제거하라는 가르침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 **행간** 行間에는 즉도 卽度 사상이 숨어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해탈되어 있으면 그 해탈된 마음 자체가 천하를 제도한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끄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이고 한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세상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즉도 卽度 사상도 두 장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제1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제도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다. 무위즉도 無爲卽度다. 그리고 고통의 현장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하면 바로 뛰어가서 몸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다. 작위즉도 作爲卽度다. 즉도의 순수한 의미는 제1장으로 자연히 제도된다 하는 무위즉도 無爲卽度이지만, 그 무위즉도 無爲卽度를 능사로 여기지 말고 몸으로도 참여하라 하는 것이 제2장이다. 제1장은 대승의 체體와 용用에 있어서 체體 차원의 제도이고 제2장은 용用 차원의 제도이다.

자, 마치자. 용타의 조사선 개념은 즉불 卽佛, 즉탈 卽脫, 즉도 卽度 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이것이 조사선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용타가 말하는 이 조사선이 이 순간, 이 시대의 불교로 어떠한가 보라. 즉불, 즉탈, 즉도 이 조사선 3요 祖師禪 三要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 靈感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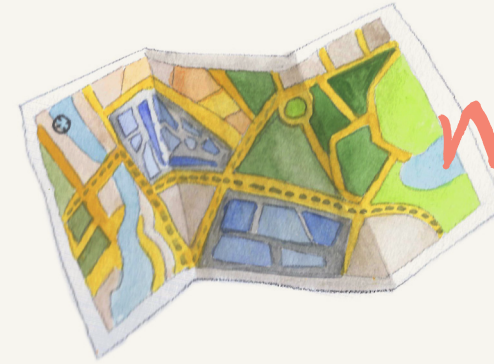
한 그릇의 정이냐.  
 한 다그릇이 아닌 열이냐를 잘 할지  
 잘은 잘하게 하지  
 하는 것만으로도 정이냐.  
 정을 잘하게 하는 것이냐.  
 이나, 한 사람 한 사람

정이냐를 잘하게 하는 것이냐  
 (정)



# 나는 어디에 있는가?

청개구리 조영호 님



# Where am I?

지난여름 주말농장에서 서툰 솜씨로 연장을 들고 일을 했더니 손에 물집이 생겼다.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 후 며칠 지나니 물집은 다 치료가 되고 흔적도 남지 않았다. 이런 일은 가끔 있던 일이지만, 동사섭에서 수련을 마친 탓인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의문이 떠올랐다.

“과연 누가 나의 상처를 치료한 것일까?”

“내가 한 것일까? 나는 단지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 것뿐인데...”

“새 살이 돌아나서 상처가 나은 것인데...”

나는 새 살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 살 돌아오라고 뭐 한 것도 없다.”

“연고와 반창고? 그것도 내가 만든 건 아니지 않은가? 그것이 무슨 물질로

구성되어있는지조차 나는 모르지 않은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서 나는 더욱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 세포들일 터인데 나는 세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뿐 아니라, 세포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내 몸은 나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나일까?

음식을 소식<sup>小食</sup>하고 좀 싱겁게 먹자고 마음먹지만 어느 사이 배불리 그리고 나트륨이 가득 들어있는 얼큰한 찌개를 잔뜩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자고 다짐하면서도 어느 사이 그들의 행동을 못 마땅히 여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 화를 내고 있는 것도 나 아닌가? 물론 이런 잘못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착한 일을 했지? 나도 모르게 감탄하기도 한다.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프로이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초자아(양심), 자아(조절기능) 그리고 원초아(이드: 본능)가 있다고 했고, 에릭 번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내 마음속에 부모, 성인, 그리고 아이가 공존한다고 했다. 간단히 정리해 준 것은 고맙지만, 그들이 도식화한 것보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훨씬 복잡한 것 같다.

나의 몸이 내 것이고, 나의 마음이 나라고 믿었던 여태까지의 생각은 단지 믿음이었을 뿐이다. 물질사건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어디에 있는가?” 하고 화두를 던져 주시던 용타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에게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와 조상과 조상의 산물이고, 빛과 물과 흙, 곧 자연이 만들어준 작용이고 선물<sup>贈物</sup>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갖게 된 지식은 또 누구의 것인가. 그것은 부모님의 지식이고 선생님의 지식이고 선배들의 지식이고, 친구들이 알려준 것이고, 책에서 얻은 것이고, 아니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훔쳐온 것이다.

세상은 모두 인과관계로 얽혀있는 연기<sup>緣起</sup> 시스템이다. 나라는 것도 그 연기의 결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은 내가 존재하게 된 수 많은 원인과 인연을 무시하고 나를 스스로 규정하고 그 나를 전부인 것으로 믿는다. 이 얼마나 옹졸한 작태인가.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긴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니다.”

“환경도 내가 아니다.”

“내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내 의식도 내가 아니다.”

그런데 웬일일까? 내가 없다는 비어<sup>非我</sup>명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커지는 것을 느끼는걸. 이런 역설이 없다. 내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곧 내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 나는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고 긴 역사를 품고 있고 또 먼 우주를 담고 있다는 말이 된다.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우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봄이 오니 새싹이 피어나고 아지랑이가 춤을 추고 있다. 내 마음속에도 봄꽃이 피고 무지개가 뜬다. 봄이 나고 내가 봄이다.





# 2016년 수련회 일정

### — 일반과정

제261회	2015년 12월 30일 水 ~ 2016년 1월 4일 月
제262회	2월 23일 火 ~ 2월 28일 日
제263회	4월 17일 日 ~ 4월 22일 金
제264회	6월 19일 日 ~ 6월 24일 金
제265회	7월 18일 月 ~ 7월 23일 土
제266회	8월 7일 日 ~ 8월 12일 金
제267회	10월 16일 日 ~ 10월 21일 金
제268회	12월 5일 月 ~ 12월 10일 土
제269회	12월 26일 月 ~ 12월 31일 土

### — 중급과정

제47회	1월 18일 月 ~ 1월 22일 金
제48회	8월 16일 火 ~ 8월 20일 日

### — 고급과정

제38회	2월 15일 月 ~ 2월 19일 金
제39회	8월 23일 月 ~ 8월 26일 金

### — 청소년 행복캠프

제7회	1월 13일 水 ~ 1월 16일 土
제8회	7월 27일 水 ~ 7월 30일 土

### — 제6기 지도자과정 (5, 11, 12월 제외)

1차	2016년 1월 9일 土 ~ 2016년 1월 10일 日
2차	2월 13일 土 ~ 2월 14일 日
3차	3월 12일 土 ~ 3월 13일 日
4차	4월 9일 土 ~ 4월 10일 日
5차	6월 11일 土 ~ 6월 12일 日
6차	7월 9일 土 ~ 7월 10일 日
7차	8월 13일 土 ~ 8월 14일 日
8차	9월 10일 土 ~ 9월 11일 日
9차	10월 8일 土 ~ 10월 9일 日

### — 월례정진 (2, 7월 제외)

	2016년 1월 23일 土 ~ 2016년 1월 24일 日
	3월 26일 土 ~ 3월 27일 日
	4월 23일 土 ~ 4월 24일 日
	5월 28일 土 ~ 5월 29일 日
	6월 25일 土 ~ 6월 26일 日
	8월 27일 土 ~ 8월 28일 日
	9월 24일 土 ~ 9월 25일 日
	10월 22일 土 ~ 10월 23일 日
	11월 26일 土 ~ 11월 27일 日
	12월 24일 土 ~ 12월 25일 日

## 한 눈에 보는 — 2016 동사섭 연간 일정

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둘째주 토-일요일은 지도자과정(5,11, 12월 제외)

넷째주 토-일요일은 월례정진(2, 7월 제외)

# 누구나 이미 행복·행위를 속에 있다

고향  
보문 스님

조금은 서먹하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마음으로 첫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분반하여 허심탄회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나눔을 통해 한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다정다감함으로 모두가 가슴으로 다가온다. 이 모든 분들과의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해준 소중한 귀한 인연이라는 자각이 들면서 인연의 소중함이 크게 느껴진다. 교류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 중차대한 일임이 새롭게 각인된다. 아하! 되어 기쁘다.



사진: 바닐라 윤미정 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삶이요 삶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관이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요, 행복은 좋은 느낌이라는 삶의 원리가 확연하게 정리된다. 삶을 결정하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 삶의 관건임이 거듭 확인된다. 이번 일반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동사섭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무장해야겠다는 각오에서였다. 정체·대원·수심·화합·작선의 오요五要와의 만남은 내 숨통이 열리는 쾌거임에 거듭 감사하다. 동사섭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좋다.

안 되면 내적으로 고통이 따르고 외적으로 전쟁이 되는 화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기-주기 실습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된다. 그간 소통을 한다면서 얼마나 독선적이고 불통의 삶을 살아왔던가. 크게 아하! 된다. 잘 교류하는 일은 잘 경청하고 잘 공감하는 길이 최선임을 크게 자각한다.

1. 1g1t의 원리. 삶의 99.9%가 미세정서요 미세정서에 깨어있는 사람이 깨달은 자라는 말씀이 크게 와 닿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씀 또한 그대로 공감된다. 1g 정도의 칭찬 한마디가 1t의 성과를 낸다는 원리가 가슴 깊게 와 닿는다. 사람을 살리는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선명하게 각인된다. 칭찬하며 살자를 좌우명으로 해야겠다. 기쁘다.

2. 교류4덕.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말이 사랑합니다<sup>보시</sup>, 고맙습니다<sup>감사</sup>, 미안합니다<sup>사과</sup>, 괜찮습니다<sup>관용</sup>라고 하신다. 그대로 수용된다. 생각해 볼수록 은혜로움 속에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류4덕 덕분에 그 동안 잊고 살았던 분들이 떠오르고 감사의 정이 새롭다. 보시록·감사록·사과록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겠다 각오한다. 사람 노릇 할 것 같아 기쁘다.

3. 주전자 명상. 주전자의 무한 기능에 놀라고 그 주전자 속에 온 우주가 중중연기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중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이 아하! 된다.





제260회 동사설 일반과정  
2015.11.17~2015.11.22

4. 사람 명상. 살아있는 사람, 부처님 한 분 한 분 앞에 절을 올리고 축원하면서 가까운 가족들, 주위 모든 인연을 어떻게 모시고 섬겨야 하는지 확연히 알게 되어 행복하다. 생명에 대한 숙연함으로 전율이 흐른다.

5. 자기지족명상. 이미 넘치는 소유와 행복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 따뜻하고 지족 선상에 해탈이 있음이 온몸으로 체득되어 좋다. 칭찬사위를 할 때는 과장된 듯해 쑥스러운 느낌이 들곤 했는데 그 어떤 언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긍정적 존재임이 새삼 깨달아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긍되어 좋다.

6. 행복론. 완료형 소유인 지족행복·초월행복에 OP100의 원리를 적용하니 기존·기성을 확인만 해도 이미 넘치는 소유, 행복 속에 있음이 지족되며 난지기준의 깨달음이 심화될수록 초월행복은 저절로 되겠구나가 아하! 되어서 시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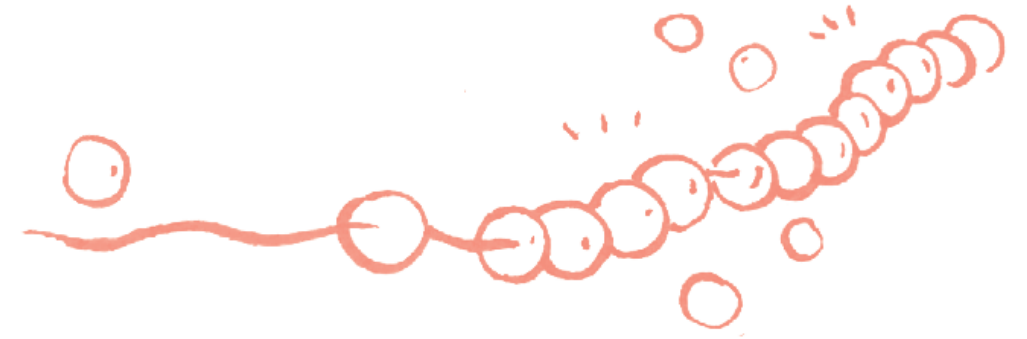
7. 번뇌구조론. 있다-좋다-싫다-쌍의 번뇌구조에 주바라밀(돈망명상), 조바라밀(지족명상, 비아명상, 죽음명상, 나지사명상)의 관행을 또박또박 해보니 자유를 방해하는 걸림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느낌이 선명해지며 해탈의 방편을 쥐고 있음이 다행 중 다행임에 감사하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포착해서 밝고 자유로운 길로 인도해주신 거울 님의 깊은 통찰력에 찬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한다.

특강은 백백 법문이다. 전 인류에게 전할 한 마디는 '지금 바로 부처한다'이다. 부처하려면 내가 지금 부처이어야 한다. 부처로 살아라. 부처인 내가 사<sup>思</sup>·언<sup>言</sup>·행<sup>行</sup>을 부처로 한다. 내가 부처임을 납득하기 위해서 나는 귀한 존재자로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귀할 수 없는 존재가 부처이니 일단 부처라고 이름 붙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다. **지금 바로 부처한다**의 의미가 확연하게 다가온다.

누구나 이미 행복·해탈 속에 있다. 깨달음이란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대로 부처이니 즉불이요 이미 넘치는 행복 해탈 속에 있으니 즉탈이다. 스스로 행복할 일이 할 일 제1호이다. 인품을 즉불·즉탈에 맞춰라. 이미 내 속에 있는 즉불·즉탈을 확인하고 수긍하고 선언할 일이 전부요 그것을 누리는 일이 전부임을 깨달으니 시원하다. 통쾌함으로 가슴 벅차다.**



# 하나하나, 구슬을 꿰어 보배를 짓듯이...



조해방  
조운영 님

일반과정은 구슬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중급과정은 그 구슬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면서 목걸이의 모습으로 보인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중급과정은 그동안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선명하게 한 줄로 엮어주었다. 또한, 그 좋은 목걸이도 그것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빛을 발하게 될 터. 끊임없이 반복 관행을 하며 해탈에 이르는 빛을 내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일반과정에서는 수행점검표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득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습을 병행하면서 점검표에 동그라미를 쳐 가는 방법을 알게 되어 기뻐다.

지금 바로 부처하라는 말씀. 이전도 부처였고 이미 부처인데 그 부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나 없음無我的 말씀을 듣는 순간 작년부터 리더십 CEO 스피치 모임에서 불편했던 기억이 올라왔다. 그 이유를 몰라 답답했었는데 그곳에 모인 분들이 모두 나라는 데 걸려 있었고 나 또한 그러했기 때문이구나 싶은 알아차림이 있었다. 바로 나를 버리니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다.

그간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몇 가지의 걸림들을 확실하게 해소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중급과정에 왔다. 그래서인지 거울 님의 강의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몸으로 체험한 시간이 많아져서 일반과정 때보다 소득이 컸다. 그러나 거울 님께서는 동사섭 지도자 과정을 권하셨지만 그 과정은 공부량이 엄청날 것 같아 엄두가 안 난다.

9,000조 부자. 이미 넘치는 소유와 행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지족명상이 행복행의 99.9%를 좌우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신다. 그 말씀에 28년 넘게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다가 월급 받고 지금까지 잘 생활해 왔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최근 전근으로 인한 갈등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감사로 전환되자마자 다 고마운 것, 감사한 것으로 가득 차서 넘쳐나게 되었다. 또 한 번 감탄하며 감사했다.

비아명상.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자연이다. 인연 화합에 따라 잠깐 왔다 가는 존재이다.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정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여를 들어서 내 몸을 그 구성 인자로 해체하여 보니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이 그대로 이해가 되었다. 어렵다고 느껴졌던 비아명상이 그대로 쑥 이해되었다.

마음은 마음일 뿐 내가 아니고, 식주체기능도 내가 아니고, 순수의식도 아니고, 묘유妙有도 내가 아니라는 데에 이르니 비아非我が 되었다. 그렇다면 지족명상, 죽음명상, 나지사명상까지 갈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현공님께 질문하니 **실체사고 ▶ 가치사고 ▶ 욕구 ▶ 분노 ▶ 불만사고**까지의 번뇌구조를 설명해주시며 약에도 약마다 쓰임이 있듯이 **죽음명상은 욕구를, 나지사명상은 분노를, 지족명상은 불만사고를** 정화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깨달음을 주셨다. 번뇌가 일어나는 구비마다 마음의 걸림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도록 해주신 치밀함과 친절함에 다시 감탄하였다.

거울 님께서 비아명상을 말씀하실 때 그리 잘게 쪼개 씹어서 입에 넣어 먹여주려 애쓰시나 싶어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당근 채찍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육적으로 다그치시는 에너지를 쓰시는 것에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온전히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제45회 동시선 중급과정  
2015.3.23~2015.3.27

구슬로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중급과정은 그동안 과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선명하게 한 줄로 엮어주었다.

시간이 되어 기뻐다. 기쁜 마음으로 지금  
아니면 언제 채근 소리를 들을까 싶었고 또  
연민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다 소리 없이 쭉쭉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번뇌구조를 명확히 다시 복습하고 나지사  
명상의 옵션인 원시고공으로 멀리 띄워놓고  
보니 '-구나'가 더 잘 되었다. '-겠지'의  
정형구조로 내 부덕이요 그의 아픔이다  
하면서 상대의 한계를 이해해보니 분노가  
더 쉽게 해소되었다. 그리고 나지사  
명상으로 수용한 위에 적절한 대응론을  
펼치라는 말씀에 나지사 명상이 더 깊게  
이해되어 참 좋았다. 죽음명상은 여기까지가  
내 몫이었다는 말씀으로 싹 정리되고  
실감도 · 직면 · 전환 · 해탈 · 의미발견까지 바로  
정리되어서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 중급과정은 명상관행 시간이 충분히  
있어 좋았다. 강의 당시에 이해했으나 노트를  
보며 잘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더 깊게  
학습하게 된 것 같아 좋았다.

이번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정리해보니 강의 지:知와 실습행:行의  
반복을 통해 4개의 조바라밀 명상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게 된 것이 소득이었다. 일단  
거울 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그대로  
쭉쭉 이해되는 것이 신기했다. 이미 잘  
들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느낌이었는데  
아직 아는 것과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겸손해져야겠다 싶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행복구현을 위한 실천에  
매진하는 것이 남아있는 숙제이다.  
그중에서 수심사위가 제일 큰 수확인듯하다.  
깨달음 수위가 늘 궁금했는데 그것이  
가치관정립 · 체해탈 · 용해탈 · 무의식해탈로  
이어지는 단계가 확실하게 이해되어서  
개운한 느낌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느껴보니  
일상에서도 사소한 아하!를 민감하게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그룹의 구성원도 큰 인연이었다. 현공  
님을 비롯하여 숲 님, 하늘 님, 무량수 님,  
용달샘 님, 새바람 님, 도술 님께 감사드린다.  
그 분들이 엮어내시는 역동적이면서도  
순수하고 또 엉뚱하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일 년 동안 웃을 수 있는 웃음을 다 웃은  
것 같다. 중급과정에 오기 전에 세웠던 세  
가지 과제가 첫날 거울 님의 말씀에 다  
풀려버려서 그 이후 시간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보냈다. 그러나 진정  
과제만 해결했다 즐거워하고 안주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 없음에 매진해야겠다는  
더 무거운 숙제를 크게 받아들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돌아간다.  
쉽게 높아지지 않던 친정 아버지의 죽음이  
반원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 저절로 쭉  
놓아졌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아하! 하는 삶



제36회 동사섭 고급과정  
2015.4.13~2015.4.17

능조  
김정현 님

### 1. 자기 마음을 자기가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겠느냐? 천국을 만들어라.

스피치를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해탈합니다에 유념하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과거의 체험에 끄달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니 지금 여기 행복·해탈에 머무르게 된다. 아하! 과거의 체험을 끄집어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넘쳐나는 행복·해탈에만 유념하면 되겠구나가 '아하' 된다. 인식을 바로 하자. 이미 넘치는 행복·해탈 속에 있음이 수궁되니 행복하다. 무한 행복하다.

### 2. 인생 3박자

혼 삼천조<sup>兆</sup>, 몸 삼천조, 경험 삼천조를 명상할 때 혼·몸·경험에 대한 감사함이 내가 느끼는 만큼 명료하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좀 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명상을 더욱 관행하여 사회화를 위한 나눔에도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탈을 누리기 위해 표현을 해 보면서 사회화를 위한 개념이 내 안에서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 기쁘다. 감사하다. 어떤 경험이라 할지라도 제치니 누릴 것이 많고 제칠 것도 관점을 바꾸니 누릴 것이 된다. 진정 감사하다. 인생 3박자라고 하더니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든다.

### 3. 조사선

조사선(祖師禪)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이 전해져 온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차례 들으니 조사선을 압권이라고 하시며 강조하시는 마음이 이해될 듯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조사선이 중요하겠구나가 내 안에서 아하 된다. 그러면서 행복·해탈이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더라도 방점이 다른데서 오는 의리선(義理禪)과 조사선의 차이도 이러한 것이겠구나가 조금씩 조금씩 이해된다. 관행과 사유의 공덕이 체험되어 행복하다. 한편 조사선에서도 능가경(楞伽經), 금강경(金剛經)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도방하(都放下)를 방편으로 했구나를 알게 되니 조사의 눈물과 마음이 살피지면서도 행복·해탈의 언덕을 건너가기 이전 방편이 있음에 안도가 된다. 조사선을 거듭 씹으리라, 거듭거듭 지금 여기 행복·해탈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해 본다.

### 4. 메시지가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이 무엇일까?

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사유해 보니 이러하겠구나가 나뉠 짚어지니 좋다. 문득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방해 요인의 가닥이 잡혀지겠구나가 아하 되었다. 권장 답(答)을 듣기 전에 스스로 사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 감사하다. 과거를 돌아보다 기초수가 잡히지 않을 때 느낌은 있는데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답답해하던 나를 보게 된다. 그래 그랬었지 하고 나를 돌아보니 도반님도 그러하시겠구나가 이해된다.

### 5. 해골통, 무엇을 했는데 아하 했겠는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유학 같 필요가 없었겠는가 사유하라. 이치를 가만히 느껴보라.'는 말씀을 듣고 아, 그곳에 길이 있구나가 아하 된다. '한 물건인데 왜 꿀물처럼 달고 토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겠는가 사유해 보라.' 아! 이렇게 사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유를 하면 깨달음에 이르겠구나가 아하 된다.

### 6. 양무제와 달마대사

'유위법(有爲法) 차원의 역할은 하되 그것이 무위법(無爲法)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라.'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마음이 다잡아진다.

### 7. 의도한 것을 성취하였다.

기초수가 어찌하여 각수가 되는 것인지 그 메커니즘이 좀 더 선명해진다. 기쁘다.

### 8. 해인삼매와 화엄삼매

돈망은 해인삼매와 화엄삼매를 다 아우른다. 화엄삼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생활 속 수행인 화엄삼매가 좀 더 강조되는 듯하다. 그래서 좋다. 해인삼매에 기울지 않고 화엄삼매를 아우르니 좋다.

### 9. 사수에 길들여지기

그냥 있는다 할 때 담담함이 거듭 체험되고 고수, 락수에 길들여진 정도만큼 길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가 아하 된다. 고수도, 락수도 아닌 사수가 좋음으로 인식되어야 할 터인데 이는



사유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거듭 좋음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구나가 깨달아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수가 체험되었을 때 ‘이것은 아니야.’ 하고 내쳐져서는 안 되겠구나가 아하 된다.

### 10. 관점이 전환되면서 온 체험은 관점만 전환하도록 도우면 된다.

체험, 즉 느낌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체험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가 아하 된다.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점 전환으로 왔으니 관점 전환만 도우면 되겠어라고 원리를 꿰뚫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관점 전환만 도우면 되겠어.’라는 마음의 있고 없음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감사하다.

### 11. 각각 세 축을 잡는다. 세 축에 따른 체험을 한다.

돈망 세 축<sup>축</sup>이 깨달음이라는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와 닿는다. 그냥 있음, 기초수 수용, 아공법공이 깨달음이구나! ‘각 세 축의 깨달음에 상응하는 느낌이 필히 따라오니 체험하라.’ 먼저 축대를 선명히 이해하고 불꽃을 잡아라가 너무나 당연한데 새롭게 아하 된다. 그러한 과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당연한 그것이 또박또박 안내되어지는데서 오는 깨달음이 새롭다.

### 12. 미소 띤 얼굴로 기초수를 수용하라.

기초수 없는 순간은 없다는 말씀이 정말 그렇다하고 수긍된다. 살짝 미소 띤 얼굴로 하라는 말씀대로 관행하니 기초수 수용이 수월해지고 기초수 수용으로 인한 각수의 느낌이 더욱 생생해지는 듯하다. 정사유를

통한 기초수 수용도 상황에 따라 하되 돈망3관을 관행할 때는 정념으로 하라는 말씀도 그러하면 되겠구나 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 13. 무한우주의 인과

나의 인과이기도 하지만 무한우주의 인과가 더 맞다는 말씀에 고개 끄덕여진다. 그러하니 기초수 수용이 법계를 정화하는 것이라 관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내 안에서 커지는 듯하다. 또한 기초수에 대한 저항감이 쑥 내려지고 기초수를 안는 에너지가 더 커진다.

### 14. 동기, 경청 그리고 관행

수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동기의 중요성, 경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듯하고 절대 좋음의 논지가 아! 하고 잡힐 때까지 어떻게 관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겠는가가 물어진다. 천 개의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도 잡지 못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 그것이 더 잡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가 아하 된다.

### 15. 삼세 윤회 믿음에 대한 관점

내생을 경험할 수 없으니 모른다, 온전히 수긍된다. 내생이 있다고 믿는다. 12연기를 관하니 있다고 믿어진다가 수긍된다. 있다고 믿는 것이 금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 주니 그리 믿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 16.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sup>空無邊處定</sup>, 식무변처정<sup>識無邊處定</sup>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이 그러한 상태이겠구나가 이해되니 돈망3관의 위상이 내 안에서 높아지는 듯하다.

### 17. 돈망3관

그냥 있음이 전부이겠지만 그냥 있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면 기초수 수용과 아공법공을 더할 때 따라오는 느낌이 좋을 수 밖에 없겠구나가 아하 된다. 1관 자체로 그냥 있는 감이 느껴지지만 기초수 수용을 더할 때 그냥 있는 감이 더욱 온전해지고 아공법공을 더할 때 더욱 온전해지는 그냥 있는 감이 말씀을 따라가니 느껴진다. 그리고 1관으로 인해 그냥 있는 감이 백 퍼센트 온전하다 하더라도 2관, 3관을 더할 때 더욱 좋겠구나가 아하 되어 좋다. 온전히 1관으로 관행되어지도록 반복하리라. 온전히 1관으로 관행되어지더라도 2관, 3관을 더한 관행을 거듭하리라 다짐한다.

### 18. 바닷물은 짝어 먹어봐야 안다.

문득 바닷물이 짜다라고 아무리 일러 주더라도 바닷물이 짠지를 직접 맛보지 않으면 소용 없겠구나가 아하 된다. 그냥 있는다를 체험해 보고 좋음이 확인해진다면 거듭거듭 관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세 가치 이치를 사유로 뚫고 이에 상응하는 느낌을 체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그런 다음 그 좋음이 길들여진 고수, 락수의 콜라맛보다 맹물맛이 좋음을 거듭 체험으로 아하 하는 깨달음에 이르러야 하리라. 그렇게만 이어진다고 하면 깨달음을, 1초짜리 깨달음을 관행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이 든다. 결국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짝어 먹어보아야 하는구나가 아하 된다.

### 19. 방하고공<sup>放下故空</sup>

환경은 내가 아니다 하니 법이 싹 사라지고 몸만 남는다. 몸은 내가 아니다 하니 덩그러니 딱딱하게 남아있던 몸이 뻗 비어진다. 부유하는 듯한 기체 상태의 마음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하니 더욱 가벼워지는 느낌이 느껴진다. 마음이면 다 치워지는데 식주체기능은 내가 아니다 하니 청소한 방을 한 번 더 청소한 뒤의 개운함이 더해진다. 순수의식, 묘유<sup>妙有</sup>를 쓸어버릴 때도 마찬가지로이다. 조사의 방편으로 쓰인 도방하<sup>都放下</sup>의 위력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간다.

### 20.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으니 있다에도 고착되지 않고 없다에도 고착되지 않는 자유함을 산다.

어느 것에 고착되어 자유로움을 살지 못하기에 없음을 방편으로 취하는데 결국 방편으로 취한 없음에 고착되어 자유함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겠는가를 생각하니 아차 하는 마음이 든다. 방편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자유함을 살면 될 뿐이라는 조사의 가르침, 돈망의 의미가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취한 방편을 필요에 따라 가져다 쓰되 딱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는다 하니 방편에 매여 있던 마음이 스스로 풀어지고 만큼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아! 조사선이여, 돈망이여!

21. 단 없음을 선택한다.  
왜 없음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왜 없음도 없는 없음인가를 알  
것 같다. 있음도 없음도 끄달리는 순간  
방편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아하 된다.

22. 대광주리 법문과 인식 전환  
가족 이기주의, 지역·국가·지구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에 약간 치우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대광주리 법문으로 무아-연기-해탈,  
무아-동체-대비를 인식하자 지구  
이기주의에서 훨훨 벗어나 무한우주를  
끌어안는 마음이 된다. 한 생각 전환이  
불해탈과 해탈을 가른다. 놀랍다.

23. 제법무아 諸法無我  
윤회하고 있는 그것이 무아다 라는 말씀에  
윤회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씹을수록  
아, 정말 1초 전의 그것이 1초 후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윤회이지 하고  
아하 된다. 모를 때 윤회와 무아 개념이  
모순으로 보이지, 알고 나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놀랍다.

25. 행동명상  
(1) 행동명상에서 행동의 범위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행동으로 넓혀지면서  
모든 사<sup>思</sup>언<sup>言</sup>행<sup>行</sup>으로 정의되니 좋다.  
생각이 행동에 들어갈까라는 일말의  
의아함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깨끗이  
사라진다.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생각을 걸림 없이 잘 해낸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와 닿기 때문이다. 거듭  
씹으면 씹을수록, 실습하면 실습할수록

행동명상의 이론이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법리로 내 안에 우뚝 선다.  
(2) 반복하다 보니 온전히 웃고 웃을 수  
있고 춤과 노래로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된 듯하다. 웃고자 하면, 울고자 하면  
온전히 나를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보일까에  
얼매이지 않고 웃고 울 수 있으니만큼  
자유롭다. 분노 표출은 내 안에 있던 분노를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표출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도 만큼 자유롭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만큼  
자유롭다.

### 26. 의식전개과정

‘수동성구나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고 지금  
여기 깨어있는 의식을 의식하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이 정도로 간단한 말씀으로  
옴의 안내가 가능하구나가 체험되어  
놀랍다. 이전에는 수동성구나에서 에너지를  
좀 더 회수하더라도 이것이 옴인지,  
옴나인지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물과 나 사이의 공간에 머물다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옴이라고 생각하고  
관행해 왔다. 이번에는 의식전개과정의  
개념허용성구나(시명 컵), 능동성구나(컵을  
본다), 수동성구나(컵이 보인다), 옴(보이는  
것 놓아버린 상태) 단계, 단계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구분되니 더 바랄 것 없이  
명료하고 개운하다. 눈 뜨자마자 바로  
개념으로 치달던 과거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옴에서 개념허용성구나로의  
의식전개과정이 체험되니 그것이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 중의 신비로 여겨진다.  
우리 모두 개념으로 나아가기 이전의 옴나

의식 상태로 머물고 그 의식 상태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에너지를 회수하고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정진하리라 다짐한다. 감사하다.  
 법등이 있기에 자등이 있고 이론이 있어  
 이론대로 관행하니 관행에 따르는 체험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 27. 평화로워지세요. 행복해탈하세요.

“평화로워지세요. 행복해탈하세요.” 말씀에  
 눈물이 난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있다. 나다.’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 진정한  
 행복해탈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돈망 3관을  
 손에 쥐어주시고자 어느 누구도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논리정연하게 안내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담긴 진정성과  
 대원이 그대로 전달된다. 진정으로 큰스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행복·해탈의  
 방편을 손에 쥐고 지금 여기 바로 부처하는  
 행복해탈을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해  
 본다. 기.전.향!

28. 우선 방법론을 이해해야 할 것이요,  
 다음은 방법론대로 실습을 해보아야 할  
 것이요, 실습을 해보니 실습 결과가 좋아야  
 거듭 실습을 하고자 하겠지.(그 좋음이  
 5~1 중 5로 좋으면 더 좋고...)

방법론 이해-실습-결과로 이어지는 한 단계  
 한 단계가 깨달음이구나. 그 좋음이 5로 좋을  
 때까지 실습하는 것 또한 그러하겠구나가  
 아하 된다. 4박 5일 동안 꾸준히 방법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한 방법론대로  
 실습을 하면서 1,000번의 정자표 쓰기에  
 매진하는 도반님들의 모습이 숭고해 보인다.

너무나 심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심심할 수 없는 작업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그  
 단계 단계에서 얼마나 소중한 귀한지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 좋음이  
 진정 5로 좋을 때까지 함께 관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 29. 돈망 파지 이후 나의 경험담

잇을 만하면 기억나도록 들려주시는 나의  
 경험담이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 관행하지 않는  
 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견지된  
 그것을 놓칠 수 있음을 몸소 겪었으므로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한다. 실수가 경험이 되어주니 실수를  
 산다. 아! 이것도 참 좋구나 하니 기쁨이  
 올라온다.

스승님, 도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지고한 행복·해탈을 위한 일, 가장 숭고한  
 일을 함에 있어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기.전.향.합니다!







녹차송 綠茶頌  
박희진

녹차를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근심이 빠지고  
눈빛이 흰 연꽃처럼  
서늘해지느니.....

먼 곳에서 벗이 찾아 오거든  
목욕물 데워 피로를 풀게 하고  
우선 한 잔의 녹차를 권하게라  
그러면 그것이 더없는 대접이리

벗의 얼굴이 보름달인 양  
환히 빛날 썸엔  
거문고 한 가락 안 할 수 없으리

좋은 차와 벗과 거문고와.....  
그밖에 더 무엇을 바라리오  
그저 안온하고 흡족할 따름이리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뜻 님의 낭독으로  
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정연호 님 <대화의 시작>





구름과 다투지 않고 구름을  
 해결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구름과 다투면서 구름을  
 제거하는 행위를 그치고  
 태양을, 허공을 그냥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음공부 길의  
 주바라밀로 허공을 노래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주 이대로  
 청정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큰스님 책 «10분 해탈»

## 공부 길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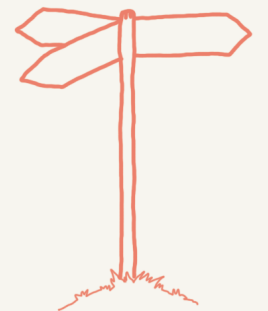
제1장 <행복특공대> 중  
 p62 ~ p67

용타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당연한 일입니다만, 공부인은 공부 길을  
 정립해야 합니다. 즉 순간순간 하루하루 해야  
 할 공부가 무엇인지 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길은 바로 차안<sup>此岸</sup>에서  
 피안<sup>彼岸</sup>으로 건너가는 뗏목이니가요.  
 어떻습니까? 공부 길은 확히 정립되어  
 있습니까?

공부 길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는 부처님 당시의 8정도<sup>八正道</sup>와  
 삼학<sup>三學</sup>, 대승불교 시대의 육바라밀을 그  
 표준으로 해야 바람직합니다. 이것들을  
 참고로 하여 자신에게 맞는 공부 길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부 길은 일단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화두 하나면 된다, 혹은  
 아미타불 하나면 된다는 식으로 너무  
 간단한 공부 길을 갖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 길은 일단 간단한 것이  
 좋으나 너무 간단하다는 것은 너무 건조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복합적인 마음을 다  
 아울러 다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되 너무 간단하지 않게, 복합적이되  
 간단하고, 간단하되 복합적인 길이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 구름보다 태양을 보라

내가 운영하는 수련회에서 권장하는 공부 길을 참고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수련회에서 공부 길을 이야기할 때에는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을 직각이 되게 쭉 펴면서 “이것이 동사섭의 바라밀 체계입니다.”라고 말하지요. 즉 하나의 우뚝서 있는 엄지손가락은 주바라밀(主波羅蜜: 가장 주력해야 할 행법)이요, 다른 네 개의 손가락은 조바라밀(助波羅蜜: 보조되는 행법)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것들은 다 세바라밀(細波羅蜜)입니다. 간단히 표현해서 주조세(主助細) 바라밀 체계입니다.

불성(佛性)과 불성을 가리는 번뇌(煩惱)가 있다고 할 때, 비유법으로 설명해 본다면 태양(혹은 허공)과 태양(허공)을 가리는 구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공부 길은 구름을 제거하고 태양이 온전히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효과적으로 구름이 사라지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공부인의 큰 관심사입니다.

세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공부 길은 구름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당연히 들립니다. 불성(佛性)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탐진치 번뇌 때문이라면 탐진치를 제거하여 불성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논법입니다. 이 논법은 인류 역사와 인간의 삶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적용되는 여러 경우에 중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사계의 선각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련 때마다 인류 역사가 범해 온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합니다.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별해 놓고 악에 대한 인식을 과민할 정도로 사실보다 크게 부각시킨다는 점과 세상을 선하게 하기 위해 악과 싸운다는 점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지만 선악의 구별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악은 선에 비해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한 악을 심하게 크게 느낀다는 것은 어리석음 중에 큰 어리석음입니다. 나아가 악을 지양하기 위해서 악 자체를 잡고 싸우는 것은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지요. 물론 단적인 말은 아닙니다.



## 번뇌와 다투지 말라

악과 다투어야 할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악을 다룸에 있어서 악과 직접 다투지 않아도 될 상황이 놀랍게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점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부정적인(?) 한두 가지에 집착하면서 자책하는 것, 자녀들의 긍정적인 점이 무수한데 한두 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겨 그것과 다투면서 자녀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것, 자기 가정이 그만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원하는 무엇이 좀 부족하다고 지옥을 살고 있는 것, 이 세상 이대로 거의 절대적으로 괜찮은데 개판이라고 낙담하는 것 등등 실로 무수한

경우에 부정 시각을 세움으로써 신명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한 예가 스스로 활발인데 중생이라 여기는 점입니다. 마음공부 분상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번뇌(?)를 죄악시하면서 번뇌와 다투는 것입니다.

구름과 다투지 않고 구름을 해결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구름과 다투면서 구름을 제거하는 행위를 그치고 태양을, 허공을 그냥 노래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노래하라, 허공을 노래하라, 시적으로 들리니 듣기에 좋기도 합니다. 허공을 노래하고 있노라면 구름은 그 존재 의미를 잃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음공부 길의 주바라밀로 허공을 노래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주 이대로 청정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미 시비 저편의 청정(淸淨)입니다. 곧 우주는 이미 무시비(無是非)의 대청정, 곧 부처 아님이 없고, 진리 아님이 없고, 보기에 좋기만 한 것입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이 그것이요, 즉심즉불(卽心卽佛) 여즉시불(汝卽是佛)이 그것이요,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가 그것이요, 지도무난유협간택(至道無難唯嫌揀擇)이 그것입니다. 석존께서는 보리수하에서 깨달은 바를 녹야원에서 설법을 통해 5비구를 위시하여 야사와 야사의 친구 등 54인의 제자들에게 납득시키시고 아라한이라는 명예까지 달아 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대로 청정, 이대로 부처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진: 정연호 님 <폭풍이 지난 후>



나의 경우는 일심법계를 대청정으로 관조하면서 그 이름인 아미타불 阿彌陀佛을 상념 想念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수련회에서는 중급과정에서 조바라밀 세 개로 자신 속에 느껴지는 탐과 진과 치를 각각 다루어 정화하고, 다른 한 개의 조바라밀로는 세상이 온통 이대로 좋다는 명상을 하여 지족사고가 인격으로 뿌리내리게 하며, 고급과정에서는 돈망 頓忘이라는 제목으로 활불을 노래하고 법계의 청정을 노래하는 한 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태양이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로 확인하는 일을 9할의 에너지로 하고(주바라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려 함에 구름이라는 것이 있어 다소 번거로우니 구름을 제거하는 일을 1할의 에너지로 하되, 이는 지족 바탕 위에서 한다(조바라밀). 그리고 공부에 필요한 것들이 또한 다양할 것이니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채택하여 조도 助道가 되게 한다(세바라밀).”

이런 식의 마음공부 길의 정립이 공부인에게 필요함은 여행자의 나침반과 같이 절대적입니다.



사진: 정연호 님의 일명은진 <들자 명은진>

## 수심내레이션 수심명상산책

### 5요 명상

천하의 주인이요 보살행의 도구이며 밑거름인 이 일물 一物은	정체
무한우주에 있는 유형무형, 유정무정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과 맑고 밝은 상생기운을 위하여, 이 일물의 진 존재, 진 에너지를 기 起하여 전 傳하오니 무량한 복덕이 향상 向上되소서	대원
이에 안으로, <돈망명상-지족명상-비아명상-나지사명상-죽음명상> 등의 주조세 主助細바라밀로 수심 修心을 잘하여 마음천국 이루고,	수심
밖으로, 보는 눈을 바르게 하고, 보이는 모습을 바르게 하고, 잘 교류하는 등 화합을 잘하여 관계천국 이루며,	화합
나아가 핵심소임 수명소임, 보시-감사-사과-관용 등의 비소임을 잘 작선 作善하여 세상천국 이루리라.	작선

### 주바라밀

그냥 있는다.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 아공법공 我空法空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 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	돈망
--	----

### 조바라밀

한 생각 일으키니 범사가 감사요, 지족이다. 혼이 감사요 몸이 감사요 가정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소속공동체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지역사회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나라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지구의 모든 존재들이 감사요, 나아가 공기와 물을 위시한 태양계 은하계 우주 등의 대자연이 감사요 지족이다.	지족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으며 현재의 나는 찰나 무상이니 없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일물을 응무소주이생기심 應無所住而生其心하는 보살행의 도구요, 밑거름일 뿐이다.	비아
무아인 이 일물이 천하를 돌리본다. 그지없는 모든 것들 다 여여히 그러구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그 안에 그 과이니 그러하겠지, 굳이 가치론적으로 본다 해도 절대공정이다. 감사요, 지족이다.	나지사
그것이 온다. 호흡이 멈추고 피돌이가 멈추며 사회적 역할이 끝난다. 간다. 걸림이 없다. 고요한 우주에 상생기운이 가득하고 애쓰지 않아도 돈망이다.	죽음
궁극의 회향처는 보시요, 작선이다. 핵심소임 核心所任, 수명소임 隨名所任, 보시-감사-사과-관용 등의 비소임 非所任을 그지없이 작선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작선



# 명상적 음악이 필요한 다섯 가지 마음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뉴 아더스의 명상 음악 전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현대 사회의 소란에 지친 사람들의 귀와 머리, 마음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소음, 자극적인 언어들, 상처의 말들로 우리 귀와 머리, 마음은 너무 많이 오염되어버린 듯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갖가지 감정들을 만나고 또 이를 느끼지만, 오염된 마음으로는 그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지도, 가누지도,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오염된 이 귀와 머리, 마음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있어야 우리는 일상의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지친 우리 마음에 잠시지만 쉼을 안겨주고, 일상 속에 만나는 갖가지 감정들을 어루만져 주는 음악을 선사하고자 이번 명상 음악을 기획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6명의 작곡가와 연주자, 여러 음악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껏 제작하였습니다.

## 콘텐츠 소개

명상적 음악이 필요한 마음들을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1.사랑과 감사 2.불안과 고요 3.분노와 안정 4.슬픔과 위로 5.즐거움과 행복—로 분류하였습니다. 사랑은 감사로, 불안은 고요로, 분노는 안정으로, 슬픔은 위로'로 즐거움은 행복으로 각각의 감정들을 어루만져 줍니다. 3분 내외의 곡들이 카테고리마다 3개씩, 총 15곡의 음악들로 구성되어 있고, 명상 음악의 참여자들은 6명의 작곡가들(이치훈, 오영경, 강경목, 정규철, 김용재, 김동현)과 8인의 연주자들(피아노, 스트링 쿼텟, 클래식 기타) 그리고 엔지니어 장성학, 마스터링 및 음악 감독 김영곤으로 모두 같고뛰은 훌륭한 실력과 명상 음악에 대한 크고 깊은 애정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3개의 명상적 영상 콘텐츠로 맑은 물 淨水, Clean water, 컵 盞, Cup, 나무 木, Tree가 있습니다. 맑은 물 영상은 맑은 물에 잉크가 떨어지고, 맑은 물에 잉크가 점점이 번지며 물이 잉크색으로 변해버리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후에 잉크빛 물 위로 맑은 물이 투하되고, 물은 이내 다시 맑은 물로 변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맑은 물)에 스미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그려냈습니다. 다음으로 컵 영상은 인간의 삶을 컵에 의인화하여 컵의 여러 모습과 여러 환경 속에 컵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나무 영상은 서울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나 홀로 나무를 위주로 그곳에 여러 가지 나무들의 순간들을 포착해 보았습니다. 우뚝 솟은 나무와 축 처진 나무들, 흔들리는 나무들. 여러 가지 나무들이 움직이진 못해도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 3개의 명상적 영상들은 15곡의 명상적 음악들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 잠시 '쉼'을 주고, 짧지만 깊은 마음의 평온을 선사할 것입니다.

## 뉴 아더스 New Authors:

- 이치훈
- 오영경
- 강경목
- 정규철
- 김용재
- 김동현
- 최서인 Vn.
- 강정은 Vn.
- 박다영 Va.
- 김신영 Vc.
- 김치중 Pf.
- 정규철 Classic Guitar
- 장성학 Engineer
- 김영곤 MIDI





# 동사섭인의 향기

[동사섭 회원 탐방]을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던 동사섭인은 도안 님이었다. 동사섭과의 인연을 헤아려 보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생각되었다. 그래서 도안님께 안부를 여쭙고 가능성을 타진했더니 건강 문제로 어떤 활동도 하기 어려우시다면 대담을 한사코 마다하셨었다. 이제 도안 님의 건강이 호전되시어 지금이나마 그 근황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다.

도안  
최동춘 님



사진: 권복영 기자

## 동사섭인의 향기

만 명이 다녀간 명상 프로그램인 만큼 동사섭에는 다채로운 회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지고한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수행을 하고 계신지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했던 분들을 직접 찾아가 함께한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 도안 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49년생 소머 최동춘입니다. 東春은 순우리말로는 새봄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새 바람이라고 하지요? 동쪽을 순우리말로 새라고 합니다. 고향은 전남 화순<sup>和順</sup>입니다. 온화하고<sup>和</sup> 자연을 따르는<sup>順</sup> 곳에서 자란 새봄. 그럴듯하지요? 새봄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뭇 생명들을 동면<sup>冬眠</sup>에서 깨우지요. 초등학교 시절 화순에서 꿈을 싹 틔우고, 중·고등학교 시절 빛고를 광주<sup>光州</sup>에서 눈이 밝아집니다. 고양시에 있는 농협대학을 졸업하고 고양인 화순농협에서 5년 동안 근무하던 중 1973년 국선도를 만나 수련하고 사범이 되어 1975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에서 국선도 선원을 운영하며 국선도와 동사섭을 삶의 두 축<sup>축</sup>으로 삼아 오늘에 이릅니다. 가족은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도안 최동춘입니다.  
東春은 순우리말로는 '새봄'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요.

## 동사섭과의 첫 인연은?

1980년 여름 거울 님과 학 님이 저희 국선도 수련원을 방문하시어 학 님이 국선도에 입문하여 몇 달간 수련하신 인연이 처음이고, 1984년 봄 백장암에서 참만남집단수련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참가하였습니다.

## 동사섭에서 많은 인연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인상적인 세 분을 꼽으신다면?

거울 님과 학 님, 열매 님입니다. 세 분 모두 저의 스승으로서 저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여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하신 분들입니다.

## 동사섭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있다면?

동사섭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부정적 자아관에 찌들어 자신이나 세상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열등감의 그늘에서 눈치인격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동사섭을 경험한 이후에는 긍정적 자아관, 초월적 자아관을 장착하여 밝고 자유로워졌습니다. 특히 마음의 흐름을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러 국면에서 의미 발견에 민감해진 것이지요. 경청 능력과 이해력, 표현력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내 마음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길러져 소통이 원활해졌고, 보시 덕성 또한 증진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확연해져서 세파에 흔들림이 적어졌습니다. 삶에서 필요한, 특히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사섭에서 배웠으며 또한 인간관계의 위기 상황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는 등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동사섭 공부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특히 지도자로 계시면서 많은 과정을 반복하시니 그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실지 궁금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인상적이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할 것도 덜 할 것도 없이 지금 이대로 부처임을 확인하고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탐·진·치·마·저도 우주의 신비로운 에너지로 보고 그것들과 다투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 동사섭의 여러 가치관들을 진리시하지 않고 방편시하는 넉넉함 등입니다. 많은 과정을 반복하며 이것들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나와 다른 이가 부처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상황에, 경계에 상관없이 자타<sup>自他</sup>가 부처로 보이고 모든 행동<sup>行動</sup>이 불공<sup>佛供</sup>으로 보일 때까지 거듭 공부해서 보는 눈이 바르게 될 때까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망명상을 통해 자타<sup>自他</sup>가 본래 하나임을 확실히 실감<sup>實感</sup>하여 그 힘으로 무심<sup>無心</sup>과 무욕<sup>無慾</sup>과 무아<sup>無我</sup>를 바탕으로 하는 자리아타<sup>自利利他</sup>의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사섭 36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예전 동사섭과 지금의 동사섭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전에는 만남과 화합 위주였다면 지금은 수심과 화합을 병행<sup>並行</sup>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삶의 5대 원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삶의 목적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삶의 5대 원리를 실천해서 인품으로 갖추면 부처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돈망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노자 도덕경 첫머리에 도가도비상도<sup>道可道非常道</sup> 명가명비상명<sup>名可名非常名</sup>이라 했지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면 그 본질과는 멀어진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돈망 역시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깨어 있는 의식상태, 개념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바탕의 의식상태라고 합니다. 나무에게 흙은 그 본바탕이 되고, 나무와 흙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듯,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잠잘 때도 함께 있고 깨어 있을 때도 함께 있는, 늘 우리와 하나인, 우리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본바탕의 의식상태라고 이해합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 속에 살지만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듯이, 우리는 돈망

속에 살지만 돈망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요. 나를 내가 볼 수는 없으나 존재감을 느낄 수는 있듯이, 돈망 역시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보기는 어려우나 느낄 수는 있지요. 그러면 돈망명상은 왜 필요한가? 돈망명상의 체험은 깊은 휴식이 되어 삶의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으며, 우리는 본래 나라는 개별자<sup>個別者</sup>가 아닌 중중연기<sup>重重緣起</sup>로 얽혀진 한 생명임을 깨닫게 되어 무아<sup>無我</sup>: 나 없음 무욕<sup>無慾</sup>: 욕심 없음 무외<sup>無畏</sup>: 두려움 없음의 자유로운 삶, 응무소주<sup>應無所住</sup> 이생기심<sup>而生其心</sup>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망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망 상태를 체험한 분들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것 뿐이로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사섭 공부 중에  
 어느 것 하나 인상적이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할 것도 덜 할 것도 없이 지금 이대로  
 부처임을 확인하고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사섭人으로서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이 좋은가요?

동사섭人이라면 보는 눈과 보이는 모습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사섭 가치관을  
 온전히 체득하여 그것이 삶으로 드러난다면  
 부처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보는 눈도  
 부처답게 보고, 보이는 모습도 부처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나 자신이 인정하는 것만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처의 속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동사섭 사상은  
 우리는 이미 만큼 부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부처답게 생각하고, 부처답게  
 말하고, 부처답게 행동하면 부처의 인품이  
 형성되어 부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학대사의 말처럼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생명까지 부처로 보이는 눈으로 산다면  
 스스로 행복하고,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지도자로서 동사섭  
 회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도반(道伴)으로서 저 자신에게 늘 다짐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스승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선택을 하고, 일단 선택을 했으면 한 눈을  
 감고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는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다 고려하여  
 선택을 하고 일단 선택을 한 후에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 정진하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악마  
 설법도 법에 귀의해야지 사람에게 귀의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가 전하는 법까지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법이 옳다면 전달자가  
 누구든지 믿고 따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울 님께서 운전하는 열차에  
 승차한 공동운명체입니다. 거울님께서  
 운전하는 대로 따르며 하차(下車)만 하지  
 않는다면 목적지인 저 언덕(彼岸)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도반(道伴)이 거울입니다.

우리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이 필요합니다. 도반(道伴)이 거울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끼리 서로 거울이 되어 탁마(琢磨)한다면 우리 속의 부처가 활짝 드러나 부처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5대 원리(五大原理)의

지(知)·행(行)·득(得)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만나서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여러분께서 동사섭과 인연된 것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어떤 섭리(攝理)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인연의 씨앗을 잘 가꾸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것은 삶의 오대원리(五大原理)의 지(知)·행(行)·득(得)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여 체득하여 인격화하면 삶의 향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3,000번쯤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 합니다. 아는 것이 바로 인격이 되기는 어렵겠지요. 거듭 반복! 반복! 반복! 하여 의식하지 않아도 절로 될 수 있도록 체화(體化)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 넘어졌다고 포기해 버리면 걸을 수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잘했어! 한 번은

일어섰잖아!”입니다. 되는 것을 세며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하는 흑백사고(黑白思考)가 아니라, 만큼 된다는 점층사고(漸層思考)가 필요합니다. 달인(達人)은 특별한 것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을 반복, 반복하여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달인이 되려면 10,000시간 정도를 실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 교학상장(敎學相長)입니다.

교학상장은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지요. 제 능력은 아직 불완전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친다는 말로 스스로 위로하며 아는 것, 배운 것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한때 저는 온전히 알고 행하고 체득한 뒤에 나누리라 마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은 신의 영역이고 불완전이 인간의 영역이어서 인생은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임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아는 만큼 나누고, 이해한 만큼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할 수 있기 전에 배워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바른 가치관을 실현합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니 우리 모두의 의무이지만, 행복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주의 주인인 우리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수심(修心)하여 마음 천국 이루고, 화합(和合)하여 관계 천국 이루고, 작선(作善)하여 세상 천국 이룹니다.

철큐언(贅言)

군더더기를 덧붙이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또는 ‘도인’, 이하 ‘부처’로 표현함)입니다. 더할 것도 덜 것도 없이 이대로 완전하다. 이대로 부처대!라는 말씀이 선각자들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흔히들 부처라 생각하지 않지요. 만약 자신이 부처라면 이리이러하겠지만 나는 아직 부처가 아니니 저러저러해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조리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을 바꾸어 자신을 부처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부처다운 말과 부처다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 방안에 떠도는 먼지가 보이듯이 부처의 밝은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의 부처가 아닌 요소들이 보이게 되며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부처의 속성을 선택해서 부처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처임을 인정하는 것이 한 깨달음(頓悟)이라면 부처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점수(漸修)가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부처가 된다고 착각하고 어둠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사섭에서는 어둠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어둠은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둠이 실재(實在)한다면 불빛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빛을 가져오면 어둠은 절로 사라집니다. 존재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릅니다. 어둠을 시비하는 것은 그림자를 시비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우는 것은 허깨비와 싸우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이지요. 어둠은 본래 없습니다. 그러나 빛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이 동사섭 사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의 동사섭에 관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도 명상적으로 늘 기억하시면서 주변을 밝게 비추는 밝은 길잡이 역할도 하시고 한분 한분 우리가 가진 본디 순수한 빛을 서로 나누면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 아리타 범현 스님의 느린 만남

글·사진  
다람 홍세진 님

10년 만에 찾은 제주도였다. 늦은 시각 공항에 도착해  
낮설면서도 따뜻한 공기에 적응하며 밤길을 달렸다.

그리고 찾은 '자성원 自性苑'. 도착하니 어둠 속에서 커다란 털복숭이  
개 한 마리와 그 뒤로 아미타 님(범현 스님의 별칭)께서 마중 나오셨다.  
처음 뵈는지라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이 기사는 동사섭 회원님 중  
다람 홍세진 님의 블로그 [blog.naver.com/foodntea](http://blog.naver.com/foodntea)에서  
동의하에 발췌·편집하였습니다.



실내에 보이는 것은 작은 난로와 장작들.  
장작이 활활 타오르며 따뜻함을 내뿜고  
있었다. 스님은 우리를 맞이하시느라  
난로와 방을 깨끗이 청소하셨다고 한다.  
스님의 정성스러운 맞이에 마음도 난로처럼  
따뜻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다기를 꺼내시고  
물을 끓이신다. 그리고 천천히 잔에 물을 부어  
잔부터 데우신다. 차의 본래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릇부터 데워야 하나보다. 소중한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릇부터 데워야  
하는 것은, 마치 나의 마음부터 데워 놓아야  
소중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 같다.  
그러시고는 안부와 날씨부터 아주 소탈하게,  
질문들을 편히 툭툭 던지신다. 어려워  
긴장되었던 마음이 조금씩 내려갔다.



오룡차라 하셨다. 우리가 흔히 우룡차라고  
부르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 정도의 발효차라  
하신다. 다기에 물을 부어 찻잎을 우려내고  
아까 데워 두었던 찻잔에 첫차를 따라주신다.  
첫 한 모금을 마시자마자 입안에 감미로운  
꽃향기와 꿀 향기가 맴돌았다. 마치 설레는  
첫사랑의 느낌, 순수하고 어여쁜 맛이었다.  
푹푹함이 살아있는 차 맛에 살며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는 사이 두 번째 잔을 채워  
주신다. 아까의 꽃 향에 좀 더 다채로운 맛과  
여러 향이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을 두드려  
왔다. 첫 잔이 처음 시작하는, 아직 가려져  
있는 맛이라면 두 번째 잔은 이제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맛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려낸  
차. 조금 씩씩한 맛이 올라왔다. 처음과 두  
번째의 여행을 통해 이제야 차 본래의 본성이  
나오는 그런 맛이라 하신다.







차를 마시는 이 잠깐의 시간이 마치 인생을 여행하는 듯했다. 느리게 찻잔을 데우고, 한 잔씩 우려내고 또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인생의 단맛, 향기로움, 달콤 짭짤한 맛, 싱거움 등 많은 기억이 머리를 스치고 마음을 건너간다.

차의 여행을 음미하면서 벽에 붙은 그림에 시선을 옮긴다.

그림을 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얀 여백이 가득한 그림. 저 끝에 날아가는 새 두 마리 마저 날아가고 있으니 자유로움이 한껏 느껴진다. 그리고 아래 적혀있는 두 글자. 無事.

그림을 보며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 일이 없음. 즉 좋은 일도 그냥 좋기만 한 건 아니고 나쁜 일은 마음이 힘드니, 결국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 무사의 상태가 가장 평화로운 최고의 상태라는 것이다. 말의 뜻과 그림의 여백이 어우러져서 나는 진심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짐을 느꼈다.

그림을 보면서 스님은 '농차', '눈물차'라고도 부르는 차를 만드신다.

다기가 소꿉처럼 작았다. 또다시 작은 찻잔을 데우고, 찻주전자에 차를 넣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을 조금씩 천천히 부으셨다.

차를 따르기보다는 나오는 차를 방울방울 담아내시는 듯하다. 느리게 기다리는 차의 방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을 툭툭 두드리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내린 차를 입안에 조심스레 넣어서 와인을 음미하듯 혀를 굴리며 맛을 느껴 본다. 밤 맛 같기도 하고, 고구마 맛 같기도 하고 또 꿀맛 같기도 한 눈물차. 차 한 가지에서 이렇게 오묘한 맛들이 나오다니 다시 한 번 놀란다.

다기가 소박하지만 작고 우아해, 다기에 대해 여쭙었다. 스님은 눈물차를 제대로 내리는 다기는 많지 않다고 하셨다. 똑같은 모양으로 더 화려하고 더 멋들어져 보이는 다기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가장 최적의 속도와 맛으로 방울방울 차를 내릴 수 있는 점이라 하신다. 결국,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닐까. 길의 화려함보다, 진정으로 자신의 속도를 알고 그 속도를 조절할 줄 알며, 그래서 최상의 차 맛을 낼 수 있는 내실의 중요성 말이다.

사람 역시, 번쩍번쩍한 길의 화려함에 도취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를 알고 조절하여, 내면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한다면 가장 소중한 한 방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감과 따뜻함에 점점 녹아들면서 작고 여유 있는, 중간중간 쉬이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자성원에 오랜 시간 인연을 두었던 실상 님과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나는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것에 스님이 하신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우연이 어디 있나, 다 인연이지.’

오늘 처음 뵈었던 범현 스님. 소탈하시고 편안하신 눈빛과 말씀. 그러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차를 만들어주시며 보였던 그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과 마음. 그리고 평범하게 말씀하셨지만, 순간순간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깊은 한 마디들. 이 잠시의 만남으로 나의 마음은 충만해졌다. 그리고 빠르고 과하게 들어온 행복감이 아니라, 느리고 부드럽게 들어온 여백 같은 행복이었다. 이것이 無事의 느낌일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자성원을 나오는 길. 스님은 또다시 자성원 입구까지 나와 배웅해 주신다. 편안한 미소로. 그리고 우리가 막 출발하려는 그 때, 스님이 아끼시는 금잔옥대를 한 송이를 건네주신다. 꽃 한 송이를 무심하게 건네어 주시며 작별을 고하는 모습에 또다시 범현 스님의 따뜻함과 섬세함을 마음에 담는다.

인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범현 스님과의 인연. 행복하고 감사한 이 인연을 오래도록 느리게 이어가고 싶다.





# 過古寺 — 清虛休靜

# 과고사 — 청허휴정\*

통나무  
고완수 님



花落僧長閉  
春尋客不歸  
風搖巢鶴影  
雲濕坐禪衣

화락승장폐  
춘심객불귀  
풍요소학영  
운습좌선의

꽃지는 곳 옛 절 문 길이 닫혔고  
봄 따라 온 나그네 돌아갈 줄 모른다  
바람은 동우리의 학 그림자 흔들고  
구름은 좌선하는 옷깃 적신다

\* 청허휴정(淸虛休靜)  
조선시대의 고승. 서산대사

어느 무르익은 봄날, 서산대사는 옛 절을 지나게 된다. 절 문은 오랫동안 닫혀 있고 꽃잎은 바람에 떨어지고 있다. 나그네는 봄을 찾아와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다. 바람은 학의 동우리가 있는 나무를 흔드는데 여기서 학의 그림자를 흔든다 하고 있다. 구름은 좌선하는 선객의 옷깃에 축축이 스며들어 가고 있다.

이 시는 한 폭의 풍경화를 보여준다. 봄 찾는 나그네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일 수도 있고, 봄을 완상하는 상춘객일 수도 있고, 설레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는 청춘 남녀일 수도 있다.

꽃이 지고 있는 옛 절의 풍광. 나그네는 그 풍경에 취해 돌아갈 줄 모른다.

1993년 가을, 나는 북한산성 안에 있는 상운사(祥雲寺)라는 곳에 주말마다 가서 지내곤 했다.

어느 날, 나이 육순에 가까운 외국인 부부가 찾아왔다. 스페냐 몬티베어 씨와 그의 부인 폴렛이었다. 남편은 스위스인으로 유니세프 한국대사, 부인은 프랑스인으로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시인이었다고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시를 소개해 주었더니 얼마 후에 영어와 불어로 번역해 왔는데 영어로 된 것을 소개한다.

Going to the Festival

at the old temple  
full of flowers  
full of blossoms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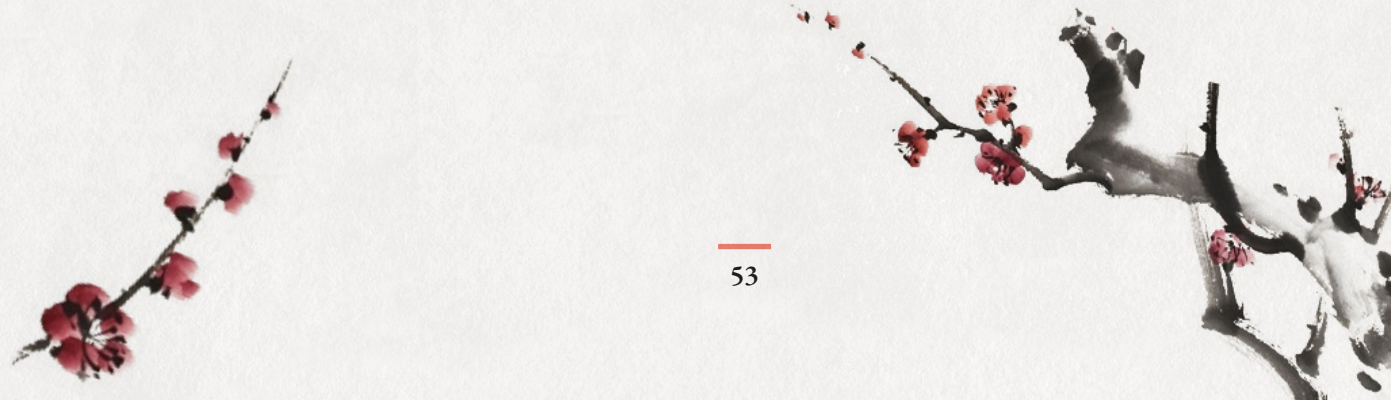
fervent travelers  
visiting spring  
never returns home

Further

wind shakes  
further shadows  
in the tree

Clouds

moisting  
the robe of the meditating  
monk





중조  
김수자 님

# 생일



2015년 10월 10일은 손녀 황다정 양의 돌이다. 우리 부부는 KTX를 타고 서울 다정이의 돌잔치에 갔다. 다정이는 한나절 전세 낸 카페에서 모조 돌상을 받고 사진을 찍고 돌잡이를 했다. 빌려온 돌짜리 전용 드레스와 한복을 번갈아 입고 돌 사진을 찍었다. 낯선 환경에 낯선 의상이 불편한지 모자를 벗어 던지고 몸을 뒤흔치는 바람에 사진 찍는 일이 쉽지 않았다. 카페 직원은 연신 비눗방울을 날리며 까꿍 까꿍 하면서 아이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야단법석이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 엄마아빠도 아이의 예쁜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이다. 그러나 다정이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집어 던지고 내팽개친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전쟁은 한 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어른들 앞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는 다정이를 보고 있자니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저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아이는 모든 어른을 제 앞에 굴복시킨다. 먹고 놀고 울고 웃고 떼쓰는 것만으로도 관심과 떠받듬의 대상이 된다. 어른들은 온갖 것을 대령하며 아이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다. 나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던가? 누구나 생일은 있겠지만 다 같은 호사를 누리지는 않는다. 같은 세상에서 같은 시간대를 살면서도 기아와 전쟁에 시달리는 또래 아이들도 많다. 가난한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이는 어림도 없다. 다 자기 분복(分福)이런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우리 부부는 카페 한쪽에 앉아서 밥 나오기만 기다린다. 새벽에 집을 나선 우리는 시장기와 피로가 겹쳐 설 곳만 보인다. 우연히도 오늘은 내 양력생일이다. 아침부터 페이스북에 축하인사가 답지했다. 나는 생일이 음력과 양력 두 개나 되는 생일 부자다. 모든 서류에는 양력으로 나와 있고(그래서 페이스북에 뻗나보다), 집에서는 음력 생일을 지낸다. 그렇다고 생일을 별나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음력 생일에는 혼자 아침밥도 생략하고 고구마 하나로 때웠다. 양력 생일엔 손녀 생일잔치에 가느라 기차간에서 김밥 한 줄로 때웠다. 며칠 전부터 '각시 생일'을 노래 부르던 남편은 새벽에 어디론가 출장을 간다더니 종일 얼굴도 비치지 않는다. 생일을 혼자 보낸 것이 대수겠나?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한 끼 밥 안 먹는다고 큰일 나겠는가?

여자는 혼자 밥 먹는 것으로부터 독립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던가. 특히 노후에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이 최고의 선결과제다. 자식이나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받고... 멀리 사는 가족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민폐다. 생일은 독립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

손녀의 돌잔치가 끝나자, 갈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KTX를 타고 집으로 왔다. 해가 지평선에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아침에 떠오르던 해는 다정이 같고 저 기울고 있는 저녁 해는 나를 닮았다. 지고 있는 해... 집안의 주인공이 나(할머니)에서 너(손녀)로 바뀌고 있다. 오늘 그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해 뜨기 전, 나는 행복마을에 달려갔다. 차로 두 시간 거리다. 매월 두 번째 주말은 행복마을에 가는 날이다. 행복마을은 경남 함양에 있는 '코리아 녹야원'이다. 행복마을에서는 우리 모두의 지고한 행복을 위해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을 최고의 가치로 배운다. 행복마을에 갈 때마다 나는 행복해지는 법을 한보따리씩 챙겨온다. 행복마을에는 세상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내게는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은—용타스님이 계신다.

손녀 돌잔치에 서울 간다던 사람이 이른 시간에 나타나자 도반들은 어리둥절해한다. 호박씨 님은 '어제 중조 님—행복마을에서 통하는 내 별칭—이 없는 빈자리가 많이 허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시니 짝 채워지는 충족감에 행복합니다.' 라고 반긴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모두 환영일색이다. 세상에 이처럼 나를 반겨주는 곳이 또 있을까? 스님께서 오늘은 행복강의 대신 자유롭게 뒷산을 산책하라고 하신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을 오른다. 여기서도 내 생일이 화제에 올랐다. 역시 페이스북에서 소식을 접했다 보다.





사진: Kalle Gustafsson - Flickr

아침에 떠오르던 해는 다정다감하고 저 기뻐하고 있던 저녁 해는  
 나를 깔았다. 집안의 주인공이 나에서 너로 바뀌고 있다.  
 오늘 그 사실을 똑똑히 확인했다.

비록 하루가 지났지만, 산상<sup>山</sup> 생일 파티를  
 열자고 일행이 제의했다. 산책길은 깜짝  
 생일파티 장소로 변했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한뜻 님께서 순우리말 생일 축하를  
 부르겠다고 했다. 노래는 금방 몇 사람의  
 합창으로 이어졌다. 가사가 아름답다.

**햇빛처럼 찬란히 샘물처럼 드맑게 온 누리  
 곱게 곱게 퍼지옵소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맑고 부드러운 하모니가 천령산 산속에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칭찬사위 시간을 갖자고 했다. 모두  
 돌아가면서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하겠다.  
 무슨 칭찬을 듣게 될까? 두근두근.

**첫 번 타자 한뜻 님:** 중조님은 예뻐요.  
 얼굴보다 마음이 예뻐요. 남편이 잘 못  
 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글을 잘 써요.  
 나처럼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글을 쓰는  
 버릇이 예뻐요.

**수선화 님:** 중조님은 가진 게 ‘돈과 시간’  
 뿐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부러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 님:** 중조님은 말에 진실성이  
 느껴져요.

**△△ 님:** 중조님은 우리들의  
 롤 모델입니다.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마음공부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부러워요.

칭찬 한 마디 한 마디에 자존감이 쑥쑥  
 든다. 행복마을에 오기를 참 잘했다.  
 서울 갔다 오느라 쌓인 피로가 확 걷히고  
 마음속의 어두움도 사라졌다. 이렇게 멋진  
 생일파티는 난생처음이다. 단풍이 무르익는  
 가을 산에서 노래에 취하고 행복에 취하고  
 내 인생에 내가 취한다. 지족의 끝은  
 초월이라고 했다. 스님께서 항상 ‘이 순간이  
 무한 오케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한 오케이이다. 뭘 더 바라겠는가.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나는 이 순간 지는  
 해가 아니라 이글거리는 한낮의 태양으로  
 태어난다!





우리 모두의 지고한 행복을 위한—



# 스마일 갤러리





COSMOS for ONE  
ONE for COSMOS

# 우주를 만나는 행복한 시간

2015.10.24. 土

전북 김제 귀신사 歸信寺



우주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하 '우행시')을 갖기 위해 귀신사로 향했다. 늦가을 정취가 물씬 풍긴다. 돌계단을 오르니 널찍한 마당이 우리를 반겼다. 대적광전의 단아한 자태도 단풍진 고목들과 잘 어우러졌다. 우행시를 진행하는 STAFF 일행은 무어 스님의 환대를 받고 요사채로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셨다. 귀한 보이차라했는데 향기가 그윽했고 스님의 인품과 잘 어울렸다. 무어 스님께서는 우리의 방문을 환대해 주셨다. 고맷다. 그리고 행사 모두에 '삶의 5대 원리' 강의를 해줌사 부탁 드린 후 행사의 대강을 알려 드렸다. 우리는 시간 여유가 없어 지체없이 행사 준비를 해야 했다.

돌계단 입구 한쪽으로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드릴 선물과 '삶의 5대 원리' 질문지를 배치하였고 다른 쪽엔 귀신사 신도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차<sup>茶</sup> 코너를 만들었다. 대적광전 마당에 의자를 놓고 토방을 무대로 삼았다. 조금은 좁은 듯했지만 어렵지 않게 음향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오늘 행사는 음악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우행시가 되리라. 음악 공연을 준비해 주신 뉴 아더스 New Authors의 번갯불 님과 바람 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동행해 주신 이스턴 모스트 Eastern Most의 연주는 리허설만으로도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악기 배치 후 각 연주자들의 리허설이 끝났고 마당에 의자 배치가 끝날 무렵 시각은 오후 6시에 가까워졌다. 시장했다. 오늘 저녁 공양은 카레라고 하셨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식구들과 일찍 행사장을 찾아주신 신도님을 위해 귀신사 신도님들이 공들여 준비해주신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났다. 공양간에서 직접 끓인 것이라 그 정성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훈훈했다.

신도분들이 자리를 메우고 저녁 어스름이 대적광전을 감싸 안았다. 저녁의 평온함이 시작된 것이다. 한뜻 님과 자두 님이 함께 단상에 섰다. 혼자보다 둘이 서니 그림이 멋져 보였다. 여유로웠다. 우행시의 시작이다. 가장 먼저 용타 큰스님께서 삶의 가치관으로 제시하신 '삶의 5대 원리', 즉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에 대해 무어 스님께서 강의해 주셨다. 천하의 주인인 내가(정체) 모든 존재들의 행복 해탈을 위하여(대원) 자신의 마음부터 잘 관리하고(수심) 주변과 평화롭게 지내며(화합)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작선)이라는 말씀을 다양한 예화를 들어 진중하면서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다. 이보다 더한 가치관이 있을까 싶다. 신도님들의 눈빛이 빛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뽀뽀님과 우리님이 단상에 올랐다. 차가워진 몸도 데우고 분위기도 바꾸기 위함이었다. 뽀뽀님은 리듬체조 강사이시고 우리님은 뽀뽀님의 제자다.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혼자 하는 동작도 있었지만, 함께 손잡고 하는 동작이 곁들여져 우리는 이미 서로 이어진 존재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몸을 풀고 나서 하늘을 우러렀다. 아까까지 끼어 있던 구름이 걷히고 얼굴을 내민 달 사이로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흠, 별을 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를 불식시킨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별을 보는 중에 모든 조명을 끄고 한뜻님이 낭송하시는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을 들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어머니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모악산 자락 귀신사는 점점 시의 바다에 빠져 들고 있었다. 그렇게 우주를 본 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 이승의 삶을 이진투구하며 살 이유가 없음을, 지금 이대로 부처이고 욕망에 끄달리지 않고 살 이유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잠시 여유를 가진 후 우리는 음악의 향연으로 빠져들었다.

이스턴 모스트의 연주는 별과 달과 우주를 만나기에 충분히 감미로웠다. <Take the ‘A’ train>, <Somewhere over the rainbow>, <Isn’t she lovely>, <사랑가>, <On voyage>, <Moon river>, <Fly me to the moon> 등 어느 한 가지도 허투루 다뤄진 것이 없었다. 몇 곡은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그 느낌이 감미로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고 전혀 어색하거나 거북스럽지 않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현대적으로 편곡된 <사랑가>였다. 연주자는 분명 국악을 전공한 창<sup>창</sup>하는 연주자였지만, 또 귀에 익숙한 <사랑가>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게 현대 악기와의 조화가 자연스러웠다. 이스턴 모스트의 연주 후에 뉴 아더스의 음악은 더욱 섬세했다. <희망가>, <잊혀진 계절>, <이별>, <Vincent> 등은 바람님의 피아노 연주 하나로도 충분했다. 번갯불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게 했다. 그리고 한뜻님과 번갯불님이 함께 부른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많은 분의 호응을 얻었다. 이미 잘 알려진 노래이기도 했지만 한뜻님의 힘 있는 목소리와 번갯불님의 화음이 노래를 조화롭게 만들었다.



▲ 행사 전, 귀신사 주지이신 촛불님(무여 스님)께서 개금불사 전의 본존불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  
▼ 이스턴 모스트 Eastern Most의 <사랑가>. 세련된 편곡과 연주로 산 속 작은 무대를 가득 채웠다.







끝으로 마음의 별을 밝히는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는 행사 시작 전에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이미 명부전 앞에 드문드문 놓아 두었다. 모형 연꽃을 물그릇에 띄우면 LED불이 환하게 불을 밝히게 되어 있었다. 한 가족에 한 개씩 모형 연꽃을 드리고 위쪽에서부터 가족끼리 둥글게 서게 했고 신도님들이 그것을 물그릇에 넣자 불이 환하게 켜졌다. 환호성이 울렸다. 모두들 그 환한 불빛 앞에서 한참씩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따뜻한 광경이었다. 모형 연꽃은 선물로 가져가시게 했고 잘 관리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빠뜨리지 않았다. 맥으로 돌아가시는 귀신사 신도님들께 동사섭 소식지와 귀신사에서 마련한 선물을 담은 꾸러미를 한 개씩 드렸다. 흐뭇했다.

행사는 늘 그렇다. 의도한 대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의외의 성과가 드러난다. 모형 연꽃 불 켜기를 연주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후에 하길 잘했다 생각하게 되었고 남은 카레도 신도님들께 나눠드리길 잘했다 생각했다. 이 두 시간 행사를 위해 서울 센터에서는 날을 새며 준비했고 그에 보답이라도 한 양 결과는 흡족했다.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이만하면 아주 잘한 행사라 자평한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서울 센터 직원과 깨자봉, 뉴아더스 및 이스턴 모스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5년 가을은 '귀신사 **우행시**'로 한 획을 긋기에 충분했다. 행복하다.



돈망 파지 점검용 보고서

## 보고서 작성 요령

동사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돈망을 파지하는 일은 모든 동사섭 수련인들의 꿈입니다.  
이에 돈망 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니  
다음 요령에 의해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편지 등으로  
큰스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b>방법</b>     | 가. 그냥 있는다.<br>나.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br>다. 아공법공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 |
| <b>체험(명상)</b> | 방법을 따라 명상해 보고 그 체험을 기록합니다.  |
| <b>좋은가</b>    | 이 명상을 따라 해보았더니 이리이러한 좋음이 있다는 것을 씁니다.                                    |
| <b>절대성</b>    | 그 좋음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씁니다.                                  |
| <b>용해탈</b>    | 절대성을 깨달은 다음,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밝혀봅니다.                                 |

### 보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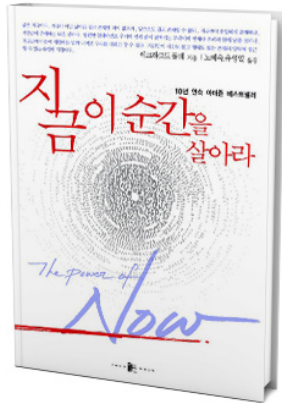
**이메일 주소**  
yongtah@dongsasub.org /  
yongtah@naver.com

**우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실곰실로 261-1  
(죽곡리 1096번지)

행복마을 사무처  
용타 큰스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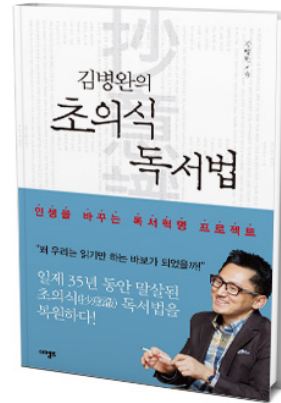
# 권장도서



##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 | 역자 유명일, 노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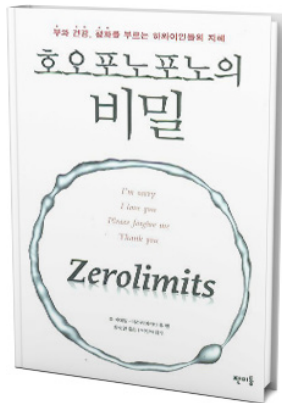
수 많은 세미나와 명상 수업 및 개인 상담에서 나온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책으로 인간 의식의 심오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 즉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를 강조한다. 변화는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누구나 내면에 품고 있는 진정성을 깨닫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 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

저자 김병완

독서법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 한국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독서법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독서법이라 여기며, 서양식 독서법보다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인 혼자 조용히 집중해 읽고 생각하고 쓰고 요약하는 초의식 독서법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 알려준다. **입지-해독-판단-초서-의식**의 독서법을 설명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현대화한 초의식 독서법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독서 노트 작성법, 집중력 강화법 등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 독서 방법을 소개한다.



##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저자 조 비테일, 이하레아카라 휴 렌 | 역자 황소연

인터넷 마케팅의 대가이자 영혼 마케팅의 창시자인 조 비테일과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적 고도 의료전문가이자 현대 호오포노포노의 권위자인 이하레아카라 휴 렌이 하와이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문제해결법인 호오포노포노의 원리와 이를 통한 심리치료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호오포노포노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온전한 책임과 자신의 내면과 친해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해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다.



## 우주 산책

저자 이정규

용타 큰스님의 천문고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 우주 진화의 역사와 지구의 탄생, 생명체의 등장과 진화를 분절된 형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시공간에서 해석한다. 마치 산책하듯 안내하는 138억 년의 시공간을 함께 걸으며 빅뱅의 순간을 마주하고, 초신성의 폭발과 원소들의 형성을 지켜보며, 별과 지구의 탄생 순간과 죽음을 무릅쓴 박테리아의 여정을 함께하면 된다. 산책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우주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 2015년 행복마을 후원금 현황

## 2015년도

행복마을을 후원해주신 분들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행복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을 보내주신

기관단체와 개인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합계

44,732,200 원

성명	별칭	금액
정인수	무심	240,000
정병주	자훈	1,320,000
최예수	열매	600,000
박무서		900,000
박경순	밀알	120,000
윤재한	법정	360,000
박기주	현공	600,000
이창효	하정	120,000
이호준	허공	500,000
김수자		600,000
김영순	수니	120,000
정홍주		120,000
유소린	플꽃네	360,000
차덕근		1,700,000
성문스님		1,200,000
진소자		360,000
정원택	해	300,000
심성걸	대은	120,000
김시은	안개꽃	40,000
이영희	하늘	120,000
조영호		200,000
홍영주	한그루	130,000
황우성		360,000
진위향	보리향	120,000
이희용		45,000
김재현	현재	240,000
나양하	밝음	50,000
강상중	범애	120,000
김순옥		120,000
이영선	언제나	60,000
윤희정	원경	240,000
김완유		120,000
김명희		90,000
김묘경		120,000
김택수	보현	600,000
박정애	산새	120,000
유명희		20,000
조현숙	일지	240,000
강을희	물	60,000
김효숙	청연	240,000

성명	별칭	금액
이옥희		600,000
진정신	달빛바다	120,000
김종근		300,000
김은숙	나무	90,000
김혜경	깎깎	120,000
최은자		25,000
석재화	대선행	120,000
김수령	자연	120,000
정해정		120,000
남현태		120,000
이정숙		120,000
서형신		20,000
김현주	현정	360,000
김현주	현정	240,000
이상희	흙	360,000
이영숙	연당	360,000
심무구		120,000
김필선	백제의미소	240,000
최환채	인산, 도림	240,000
김순옥	마니성	600,000
김순옥	마니성	900,000
정홍천	심망	120,000
이경숙	허공	600,000
조미선	설산	5,000
조길상	하심	120,000
이정란	지계	50,000
이태림	자황	120,000
도경숙	심신치유	60,000
이성수	시내	60,000
형운스님		240,000
이혜정	무아	600,000
송경옥	무현	120,000
정경희	환희	120,000
김광현	헌터	120,000
김봉섭		120,000
김선옥		60,000
설종국	길	120,000
고성옥	꼬송	60,000
김용수		240,000
양종국		240,000

성명	별칭	금액
박상현		240,000
백향하	강물	360,000
박기연	법귀스님	120,000
김정례	바다	120,000
이은실		20,000
박삼숙	마우	120,000
신광스님		60,000
김영금	올리브	70,000
정우용	진수	360,000
박재호	해룡	120,000
박영애		80,000
문영석	달너	80,000
유혜경		120,000
김영선		60,000
유민영		90,000
조현우	까만소	600,000
함성옥	심지	50,000
김현숙	무등선	240,000
조은주	선	240,000
이성희	수연	120,000
황채환	청솔	240,000
백경희	자광화	60,000
안경철	자각	240,000
김경숙		120,000
민인순		120,000
김화선	향기	360,000
한형희	쌍글	360,000
김창진	법진	600,000
장철수	무진	120,000
배정화	초록	600,000
이태희	빅맥	240,000
최정화		180,000
신경란		60,000
김성오		270,000
김진웅		200,000
김도문		130,000
김우중		60,000
오순이		360,000
김진희		120,000
이철희		90,000



성명	별칭	금액	성명	별칭	금액
허정현		110,000	박한욱		60,000
박성웅		60,000	안지현	메밀꽃	60,000
노정우	곰	600,000	오성연		120,000
홍옥순		300,000	김수선		90,000
신경미	비우기	60,000	최진	최동춘(도안)	600,000
이덕희	산지기	20,000	최정은	응달샘	240,000
이혜영	연두	120,000	권부하		40,000
윤희주		120,000	전준모	마하	120,000
김종결	순둥이	40,000	김푸름	구름	60,000
김정현	능조	120,000	경조스님		1,000,000
이윤정	바람처럼	60,000	금주연	솔4	60,000
김양선	공명	60,000	김옥희	사랑	60,000
장혜정	세음	120,000	김완규	광조	60,000
이필규		120,000	김익도		5,000
이선희		35,000	김중현		160,000
정명순	웃음소리	120,000	김진용		50,000
김소영	인애	600,000	(주)대봉식품		1,397,200
한지연	의미부여	300,000	도명스님		200,000
이명리	마하연	220,000	무풍지대		110,000
허운창		70,000	손병수		120,000
이수현		40,000	신상호	마블	360,000
한명화	혜주	100,000	신현재		50,000
조혜운		360,000	아들리코리아		400,000
장종민	아침햇살	120,000	유정사		2,200,000
정도진		120,000	이순심	별	120,000
문영호	산소	120,000	정도거사		1,050,000
송인정	공덕	360,000	지원스님		60,000
김민지	후리지아	120,000	현숙자		60,000
이영미		120,000			
정은주	오매실	60,000	합계		44,732,200
김혜진		40,000			
안형영	풍경	240,000			
한은미	서은심	600,000			
이호영	미르	240,000			
김은화		60,000			
박고은	아림	60,000			
김준규		30,000			
이국진	바람	240,000			
김학수	파이터	120,000			
장보정	별	50,000			